

# ‘원정불패’ 신화 내가 이끈다

〈올림픽 예선 15년간 14승2무〉

“특정이 가능한 위치를 잘 찾아가는 능력을 가졌다.” 올림픽 축구대표팀 사령탑 핼 베어백 감독이 지난달 28일 우즈베키스탄과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감각적인 발리슛 골을 포함해 ‘나홀로’ 2골을 터트린 한동원(성남·사진)을 평가한 말이다.

## 한동원 ‘3경기 연속 2골’ 도전

### ■ 베어백호 오늘 우즈베키스탄과 올림픽 예선

178cm, 70kg의 준수한 체격에 번뜩이는 골 결정력으로 무장한 한동원이 2008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진출을 향한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나선다.

핼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18일(한국 시간) 오후 9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센트럴 아미 스타디움에서 ‘아시아의 유럽’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올림픽축구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 4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이번 원정경기 승리를 통해 4연승으로 일찌감치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의 신나는 상승세는 올해 눈부신 골 결정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동원의 발끝에서 시작되고 있다.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한동원은 비록 스물 한 살의 어린 나이지만 K-리그 6년 차인 베테랑이자 한국 프로축구 최연소 출전 기록(16세1개월)을 보유한 주인공이다.

특히 한동원은 UAE전과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연속 2골씩 터트리면서 박주영(서울)의 ‘배치기 퇴장’에 따른 출전정지 처분의 공백을 제대로 막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일 울산 현대와 K-리그 경기에서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리면서 골에 대한 자신감이 한껏 차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베어백 감독은 이근호(대구)-양동현(울산)-이승현(부산) 스리톱을 필두로 한동원에게 공격형 미드필더와 함께 새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겨 우즈베키스탄 공략의 시발점을 이루겠다는 계산이다.

한국 특점의 첫 번째 공식은 이근호와 이승현의 빠른 좌우 측면돌파에 따른 양동현과 한동원의 골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더불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184cm)의 중앙 수비수 강민수(전남)와 킥력이 뛰어난 김진규(전남)의 공격가담 역시 베어백호의 공격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는 백지훈(수원)과 오창은(울산)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부상으로 빠진 ‘교체멤버’ 기성용(서울)의 공백은 이요한(제주)이 막을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공격의 최종 방어막은 예선 세 경기를 1실점으로 봉쇄한 최철순-김진규(전남)-강민수(전남)-김창수(대전)가 맡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관전 포인트

## 올림픽 예선 13연승 도전

▲올림픽 예선 13연승 도전=올림픽축구대표팀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1999년 11월13일 바레인전 2-1 승리부터 올림픽 예선에서 파죽의 12연승을 달리고 있다.

허정무호의 1승에 이어 2004 아테네올림픽 예선에 나섰던 김호곤호가 2차 예선과 최종예선을 합해 8연승을 거뒀고 베어백호가 3연승을 이었다.

우즈베키스탄까지 승리의 제물을 삼는다면 13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올림픽 예선 15년 원정 불패의 기록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축구는 만 23세로 출전 연령이 제한되기 시작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이후 역대 올림픽 예선 원정 경기에선 딱 한 번만 졌다.

1992년 1월 중립지역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카타르전에선 당한 0-1 패배. 이후 네 차례 올림픽 예선 원정 경기에서 14승2무로 무패 행진을 질주하고 있다.

▲오락가락 기후올통불통 잔디=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위도가 한국과 비슷하지만 4월 중순 현재 낮 기온 20℃ 안팎으로 다소 더운 느낌을 준다.

게다가 올림픽호가 현지에 도착해 여장을 풀 지난 13일 밤부터 거의 매일 비줄기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자칫 수중전이 된다면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센터필 아미 스타디움의 올통불통 잔디도 올림픽호 태극전사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박주영의 마지막 공백=지난 2월28일 예멘과 첫 경기에서 ‘배치기 퇴장’을 당한 박주영(서울)은 이번 원정길에도 동행하지 못했다.

자동 출전 정지 한 경기에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보복행위 징계로 추가 출전 정지 두 경기를 먹었을 때문.

박주영은 다음 달 16일 2차 예선 5차전 예멘과 원정 경기부터 팀에 복귀할 수 있다.

박주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동원(성남)이 두 경기 두 골씩 무려 네 골을 몰아넣어 올림픽대표팀의 새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박주영과 더불어 올림픽호의 에이스를 노리는 한동원, 양동현(울산), 이승현(부산), 이근호(대구) 등이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승원〉



〈박동석〉

# 상승기류 탄 광주 3연승 신고 대기

## 오늘 프로축구 컵대회 대전 원정경기

‘컵 대회 킬러’ 광주 상무가 ‘약체’ 대전을 제물로 대회 3연승에 도전한다. 프로축구 K-리그가 지난 주말까지 10경기를 소화해 초반 관세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주중에 열리는 삼성 하우젠 컵 2007 5라운드도 18일 오후 전국 6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관심은 컵 대회 2연승을 질주중인 광주 상무의 연속 여부.

### 여승원·‘수문장’ 박동석

### 공·수에서 맹활약 기대

이날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맞붙는 광주 상무는 최근 5경기에서(정규리그, 컵대회 포함) 2승2무1패(5득점, 3실점)로 상승기류에 올라섰다.

광주는 특히 컵대회에선 3경기 연속 무패와 2경기 연속 승리로 2승1무1패(승점 7)를 기록하며 서울에 이어 B조 단독 2위에 오른 정도로 강팀 면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전은 컵 대회에서 2무 2패의 저조한 성적으로 B조 최하위인 6위로 처져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광주와 대전의 상승세는 안정적인 수비진에 그 비밀이 있다. 광주의 ‘수문장’ 박동석은 최근 5경기

에서 3실점으로 뒤편을 꽁꽁 틀어막고 있고, 수비진에선 한태유-이윤성-김은구의 스리백 라인이 살아나면서 든든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

공격진의 활약도 돋보인다. 최철순을 맡은 남궁도는 컵대회 3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골잡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주전 공격수 여승원도 지난 경기와의 컵 대회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물론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대전도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대전의 공격중심에는 ‘마빡이 춤’ 세리머니로 유명한 ‘용병’ 데닐손이 있다. 데닐손은 최근 3경기에서 5득점의 가공할만한 솜씨로 대전 공격진의 핵으로 등장했다.

이강조 광주 상무 감독은 “데닐손이 승부의 키를 쥐고 있다. 데닐손만 잘 막는다면 어렵지 않게 승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6강 진출을 위해서라도 대전은 꼭 넘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인 성남·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팀을 2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로 열리는 컵 대회는 팀당 10경기씩을 치러 각 조 2위팀까지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른다.

광주의 ‘수문장’ 박동석은 최근 5경기

에서 3실점으로 뒤편을 꽁꽁 틀어막고 있고, 수비진에선 한태유-이윤성-김은구의 스리백 라인이 살아나면서 든든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

공격진의 활약도 돋보인다. 최철순을 맡은 남궁도는 컵대회 3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골잡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주전 공격수 여승원도 지난 경기와의 컵 대회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물론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대전도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대전의 공격중심에는 ‘마빡이 춤’ 세리머니로 유명한 ‘용병’ 데닐손이 있다. 데닐손은 최근 3경기에서 5득점의 가공할만한 솜씨로 대전 공격진의 핵으로 등장했다.

이강조 광주 상무 감독은 “데닐손이 승부의 키를 쥐고 있다. 데닐손만 잘 막는다면 어렵지 않게 승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6강 진출을 위해서라도 대전은 꼭 넘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인 성남·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팀을 2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로 열리는 컵 대회는 팀당 10경기씩을 치러 각 조 2위팀까지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른다.

광주의 ‘수문장’ 박동석은 최근 5경기



〈신지애〉

〈박희영〉

〈최나연〉

# “KLPGA 마수걸이 내가”

## KB국민은행 스타투어 내일 개막

신지애(19·하이마트), 박희영(20·이수건설), 최나연(20·SK텔레콤)이 19일 개막될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 대회에서 격돌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빈하이 레이디스 오픈으로 2007 시즌을 열었지만 신지애와 박희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 출전하느라 개막전에 불참했다.

따라서 스타투어 1차 대회가 올 시즌

KLPGA의 관도를 예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막전이 되는 셈이다.

강력한 우승 후보는 지난 해 삼금왕과 다승왕 등 각종 상을 휩쓸었던 신지애.

1월 여자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샷을 담금질해 온 신지애는 2월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 준우승, 아시아투어 태국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여자 골프의 에이스’라는 이름값을 했다.

한편 부산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KBS N 스포츠와 엑스포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한다.

# 맨유 7월 한국 온다

## 18일부터 4일간 체류

## 20일 서울과 친선경기

박지성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서울과 맞대결을 포함한 ‘2007 아시아투어’ 일정을 확정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맨유는 먼저 7월17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J-리그 우라와 레드와 아시아투어 친선경기를 갖는다.

우라와전 이후 7월18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7월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세를 퀴네슈 감독이 이끄는

FC서울과 맞붙는다.

맨유는 이어 7월23일 마카오 스타디움에서 중국의 선전FC, 7월27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부킷 자릴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 울스타림과 차례로 상대한다.

데이비드 길 맨유 사장은 “아시아는 맨유의 팬이 많은 곳이다. 우리 선수들도 그들을 만나고 열성적인 팬 앞에서 경기하는 투에 대해 늘 즐거워하고 있다. 모두가 이번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유의 아시아투어는 홍콩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를 방문했던 지난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나상욱 “바람이 미워요”

## 강풍에 샷 흔들

## 10언더 공동 4위에 그쳐

## PGA 버라이즌 헤리티지 최종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4년만에 첫 우승을 바라왔던 나상욱(23·코브라골프)이 끝내 바람의 심술에 울고 말았다.

나상욱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트헤드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장(71·6천973야드)에서 끝난 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 최종 라운드에서 2오버와 73타로 부진, 4라운드 합계 10언더와 274타로 공동 4위에 그쳤다.

지난해 시즌 초반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시즌을 접고 올해는 6차례 대회에서 3차 레나 컷오프되는 등 시련의 연속이던 나상욱은 2년만에 ‘톱10’ 입상을 이뤄내 기쁨도

적지 않았지만 코 앞에 뒀던 생애 첫 우승을 놓친 서운함도 컸다. 나상욱은 23일7천600달러의 제법 두둑한 상금도 챙겼다.

우승컵은 올해 ‘불운의 사나이’로 유명세를 떨쳤던 위클리(미국)에게 돌아갔다.

위클리는 혼다클래시 때 4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1m도 안되는 짧은 퍼팅을 놓쳐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 마크 윌슨에게 우승컵을 내주는가 하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는 동반 선수가 퍼팅한 불이 깃대가 꽂힌 홀을 향하자 ‘발타를 받지 않도록 뜯겠다’는 생각으로 깃대를 뽑았다가 2벌타를 받는 불운을 당했던 선수.

클래시에 3타차 4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위클리는 이를 1개와 버디 3개를 뽑아내고 보기 2개를 곁들이며 3언더와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와 270타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클래시에 3타차 4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위클리는 이를 1개와 버디 3개를 뽑아내고 보기 2개를 곁들이며 3언더와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와 270타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클래시에 3타차 4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위클리는 이를 1개와 버디 3개를 뽑아내고 보기 2개를 곁들이며 3언더와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와 270타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